

제목 : 협력하는 교회

본문 : 행 4:32-37

시작찬송가 : 344(새545), 349(새214), 465(새407)

헌금찬송가 : 204(새288), 346(새211), 493(새436)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늘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여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중시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주의 성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1.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하였습니다.

- 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롬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② 우리는 한 주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성도들은 한 마음을 품고 일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엡 4:4-6 목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갈 3:26-28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 주의 종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 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의 종은 주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양무리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주의 종에게 교회의 일을 맡깁니다.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집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 24: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 ② 사도들은 성령충만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고,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세우신 사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따랐으며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 10:40-41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행 4: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3.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 ①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영육의 강건, 형통과 장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가 속한 가정이 복음화 되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 2:9-10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 ② 교회는 영혼구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 사업, 빈민 사업, 장애인 사업도 다 좋지만 이것들은 이차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구제 사업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행 11:23-24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골 3:1-2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오늘의 한마디 :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 | | |
|---|-----------------|
|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
|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
| 4. 총동원 주일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 |
| 5.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 |

명성교회